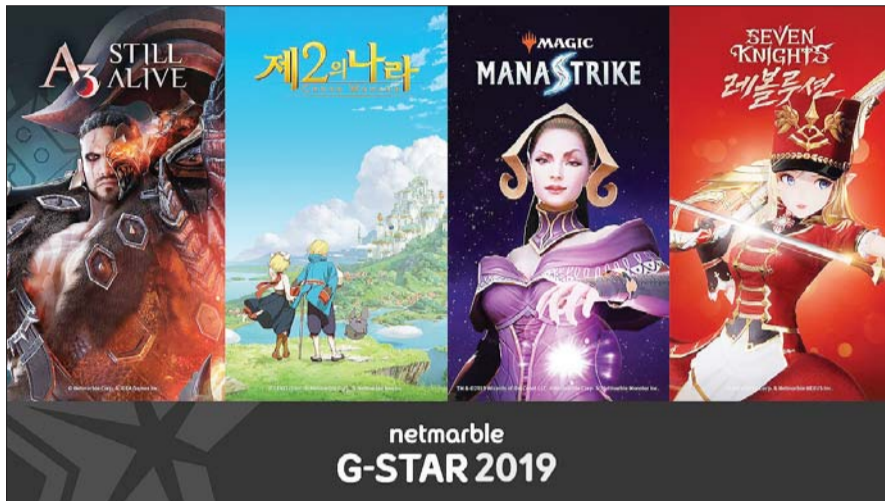


넷마블 등 신작 공개... 하반기 게임시장 패권 가린다

국내 최대 게임박 '지스타' 개막

게임업계 '빅3' 중 넷마블만 참가
넷마블 '제2의 나라' 등 신작 2종
슈퍼셀, 공식 유튜브채널 통해
'브롤스타즈 월드파이널' 생중계



넷마블 '제2의 나라' 등 신작 2종 슈퍼셀, 공식 유튜브채널 통해 '브롤스타즈 월드파이널' 생중계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 '지스타 2019'가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간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지스타는 국내 게임업계 '빅3' 중 넷마블만 참석해 흥행 열기가 식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슈퍼셀'을 포함 2년 연속 해외 게임사가 메인 스폰서를 맡으며, 글로벌 게임 행사로 도약했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이번 지스타는 국내 및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찾아 '보는 게임'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非) 게임사들의 참가도 늘어 박람회 구성도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13일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지스타 2019는 9월 기준, 2894부스(BTC관 1789부스, BTB관 1105부스)를 기록했다. 올해 지스타 BTC관은 조기신청 접수 2시간 만에 전시 면적이 모두 소진되며, 관람객 2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 빈자리, 넷마블·펄어비스 신작 들어선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넥슨의 불참에도 넷마블과 펄어비스를 필두로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될 전망이다. 게임사들의 하반기 게임 시장 패권을 미리 전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100부스를 마련한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 전용 250여

대의 시연대도 마련했다.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 라인업으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제2의 나라' 등 미공개 신작 2종에 'A3: 스틸 얼라이브', '매직: 마나 스트라이크' 등 총 4종의 모바일 게임을 내보낸다.

최초로 선보이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넷마블의 인기 모바일 게임인 '세

븐나이츠' IP를 활용한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이 게임은 세븐나이츠 영웅들이 사라진 이후 혼돈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사관 이야기다.

제2의 나라는 동화풍 애니메이션 감성이 특징이다. 모험과 여정의 스토리에 카툰더링 방식의 3D 그래픽을 접목했다. '킹덤'이라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와 협력해 길드를 발전시키는 '소셜 시스템'이 강점이다.

단일 업체로는 최대 규모인 200부스로 지스타에 참가하는 펄어비스도 눈에 띈다. 펄어비스는 액션 배틀 로얄 '새도우 아레나'를 비롯해 프로젝트 K, 프로젝트 V, 프로젝트 CD 신작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펄어비스가 지난해 인수한 아이슬란드 게임사 CCP게임즈는 PC 온라인게임 '이브 온라인'의 한글화 버전을 최초로 공개하고 지스타 첫날인 1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외에도 슈퍼셀, 크래프톤, 그라비티 등 국내·외 업체 600여곳이 참가한다.

◆'보는 게임'이 대세로...비(非)게임사 지스타 찾는 이유는?

이번 지스타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의 '보는 게임'이 대세로 떠오를 전망이다. 펄어비스는 글로벌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브 스트리밍 부스를 설치한

다고 밝혔다. 글로벌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은 펄어비스가 소개하는 신작과 게임 시연을 직접 라이브로 생방송할 예정이다.

지스타 메인 스폰서인 슈퍼셀은 15일, 16일 브롤스타즈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브롤스타즈 월드 파이널'을 연다. 모든 경기는 브롤스타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비(非)게임사들도 지스타를 찾는다. 올해 지스타에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인 유튜브가 처음으로 참가한다. 아프리카TV도 지난해 60부스에서 올해 100부스로 확장한 규모로 참석한다. 아프리카TV는 14일부터 17일까지 ▲철권7 ▲피파온라인4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등 다양한 종목으로 캐주얼 e스포츠 리그 'BJ 멸망전'을 연다.

LG유플러스의 참가도 눈에 띈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게임을 선보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최초로 지스타에 참가한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사업자 엔비디아와 손잡고 다운로드 없이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과 PC로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를 국내에 단독으로 개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지스타 개막 첫 날 지포스나우의 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현대중

EU 공정위서 합병심사 진행

대우조선

국내 비롯 총 6개국서 기업결합심사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간)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유럽이 일본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혀온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양사 합병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3대 소비생활 '의·식·주→식·주·금융' 전환

한국소비자원, 21.4% '식품·외식'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소비생활분야는 '식(식품·외식)'과 '주(주거·가구)', '금융(금융·보험)'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세 이상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 조사한 '2019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21.4%가 '식품·외식'을 소비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주거·가구'(12%), '금융·보험'(11.4%) 등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생활 11개 분야 중 '금융·보험'이 3순위 안에 포함된 것은 2013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계속 3순위 안에 포함됐던 의류는 이번 조사에서 병원·의료, 교육에

이어 중요도가 6순위로 밀려났다. 식품·외식 분야는 지금까지 4번의 조사에서 계속 1위를 차지했으나 중요도 비중은 2013년 첫 조사 때 40.8%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종합 소비생활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2017년 조사 때의 76.6점보다는 하락했지만 2015년 63.8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소비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71점을 받은 식품·외식이었다. 금융·보험은 67.9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응답자 중 52.6%는 지난 2년간 11개 소비생활분야 26개 품목에서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식품·외식이었고 이어 정보통신, 의료 순이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日·홍콩 영향... 출국자수 2개월째 둔화

아웃바운드 의존 항공업계 '타격'
'인바운드 확대해야' 목소리 커져

최근 내국인 출국자수가 둔화되면서 항공업계에 '인바운드'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 7월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항공업계는 여행객이 급감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 노선에 더불어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단거리 노선에 집중해왔던 저비용 항공사들의 타격은 훨씬 컸다. 일본·홍콩 노선을 대체할 만한 지역을 찾지 못해 결국 내국인 출국자 수가 전년 대비 급감하자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바운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지난 7월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더니 결국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기 시작했다.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7월 기준 전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6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오름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8월 출국자 수는 243만명을 기록하며 지난 2018년 8월(252만명) 대비 3.7% 감소했고 9월에도 205만명의 내국인이 출국해 7.9%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는 일본·홍콩 노선의 영향이 크다. 일본여행 보이콧과 홍콩 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모습. /뉴스시스

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일본 및 홍콩행 여객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일본행을 택한 한국인의 수요는 56만명이었지만 무역 규제 이슈 등이 발생하면서 ▲8월 31만명 ▲9월 20만명으로 줄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58.1% 감소한 수치다.

올해 3월 말부터 시작된 홍콩의 송환법 관련 시위도 장기화되면서 최근 들어 홍콩행을 택하는 여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 2월 14만명이었던 홍콩행 출국자 수는 지난 7월 절반가량인 7만8000여명으로 줄더니, 9월에는 전년 대비 59.4% 감소한 4만명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자, 항공업계에서는 '인바운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여행 보이콧·홍콩 시위 장기화 등으로 아웃바운드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에 크게 의존하던 항공사들이 속수무책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